

# 아주대의료원소식

2004

# 7

통권 제 114호 / 발행일 2004. 7. 1 / 발행인 겸 편집인 김孝哲 / 발행처 아주대의료원 홍보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443-721) 전 화 (031) 219-5114

## · 목 차 ·

- 2 포커스  
수원시 고등학생은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 3 신인재 필름  
원천골의 수호장, 아주인
- 4 나의 연구 나의 테마  
뇌중앙, 의사로서 가장  
보람 느낄 수 있는 분야
- 5 사랑의 솔타리  
참빛 장애인의 집에  
한 줄기 빛이 되어
- 6~7 돌아보는 의료진 10년(5)  
주임교수에게 전권을 위임한  
아주대 의대 교수진 인사
- 8~9 진료교실 1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철 감염질환 비상!
- 10~11 Zoom & Zoom  
아동학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12 특별기고  
일본 기흉연구센터를 다녀와서
- 13 유망인재 필름  
「오양」의 탁수술
- 14~18 AMC NEWS
- 19 장기기증은 사랑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고마운 분들
- 20 진료교실 2  
이럴 땐 신장질환 의심!
- 21 잊을 수 없는 환자  
우리 아이 말할 수 있을까요?
- 22 우리 병원 어떻게...  
아주대병원엔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요람
- 23 건강 Q&A 간 손상
- 24~25 병동 클리닉  
수술실, 그 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26 나의 건강상식은?  
안경·라식수술  
이것이 궁금합니다
- 27 협력병원 탐방 수원중앙병원
- 28 의료진발전 후원내역
- 30 전문클리닉 소식
- 31 진료시간표

## 아주대병원 토요일 진료 특진 의사가 전담



아주대학교병원은 7월1일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토요일 외래진료를 특진 의사가 전담하여 진료 하도록 함으로써 외래진료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우려되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토요일 진료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토요일 외래진료에 특진 의사 1명을 전담시킴으로써, 토요일 외래진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각 임상과별로 특진 의사들이 매주 교대로 돌아가며 토요일 외래진료에 참여하며, 특히 본인의 세부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진료합니다. 다만, 토요일 진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부 임상과(신장내과, 중앙혈액내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유전학클리닉)는 토요일 외래 진료를 실시하지 않으며, 특진 의사가 적은 임상과는 각 임상과의 사정에 따라 비특진 의사가 특진 의사와 함께 교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검사실과 기타 진료지원부서의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진료외의 분야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번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있어 아주대학교병원을 믿고 찾아 주시는 환자 및 보호자들이 추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 수원시 고등학생은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이 수원시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수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의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보급은 94년 개원이후 계속되어 왔으며, 응급의료센터가 지난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국내 처음으로 효원고등학교(수원) 1,2,3학년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폐소생술」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응급의료센터는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수원시내 고등학생 및 교수, 공무원 등 총 1,373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수원시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이란 말 그대로 심장정지 시 심장박동과 호흡을 되살리는 응급처치법으로, 최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심장정지, 화재, 교통사고, 물놀이 등 각종 응급상황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법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심폐소생술의 보급을 높여 심장정지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등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보급률도 낮고,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미비한 편이다. 이에 이번 아주대학교병원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민영기 교수는 『심폐소생술은 내 주변에서 언제 어디서 있을지 모르는 심장정지 시 의사가 아니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응급처치법이지만, 보급률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면서 『수원지역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전 지역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보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심장정지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 원천골의 수호짱, 아주인

**클**로버(Clover, Trifolium)는 장미목 콩과 토끼풀속의 다년생 또는 1년생 식물의 총칭을 말하며, 6~7월에 하얀 꽃이 피고 3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겹잎이며, 꽃말은 쾌활, 행복이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여러분은 네잎 클로버의 한잎 한잎의 의미를 아시는지 ... 첫째 잎은 희망, 둘째 잎은 믿음, 셋째 잎은 사랑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잎은 행운.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네잎 클로버를 찾는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갈래머리 소녀들이 짧은 퍼머 머리의 아줌마가 되어 30년 만에 만난 여행지에서 나는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였다. 서로의 지난 30년간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의 간병을 맡고 있는 친구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얀 눈의 스키장이 파란 여름의 풀밭으로 변한 언덕 위로 올라가면서 무심코 바라본 세잎 클로버들 속에서 네잎 클로버를 발견하였다. 행운의 네잎 클로버. 나는 열심히 또 다른 네잎 클로버를 찾기 시작했다. 함께 간 친구들의 행운을 위해서. 그리고 찾았다. 또 다른 네잎 클로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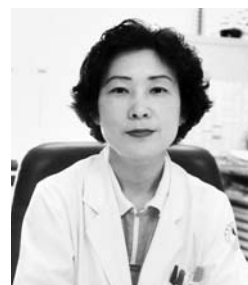
로또 복권에 일등으로 당첨되어 수억대 부자가 되는 행운만이 진정한 행운일까? 그러한 행운을 평범한 우리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낸다. 후시라도 생기면 좋겠지만 역시나 하고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 하면서 뜻밖의 행운을 크게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일상속에서 행복해 지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인터넷 덕분에 생겨난 「얼짱」, 「몸짱」이 되려고 너도 나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마음짱」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우리를 찾아오는 아픈 사람들의 수호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오늘도 물어보고 있다. 과연 지금도 나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면서 의사가 되었던 그 시절의 설레이던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를 ...

2004년 봄, 일본 열도의 30대~50대 아줌마, 아저씨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류 열풍은 「Winter Sonata(겨울연가)」였다. 첫사랑을 향한 지고지순한 마음의 주인공들이 얼어붙었던 아줌마, 아저씨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고지순한 첫사랑의 마음은 나도 가지고 있었다. 1994년 9월1일 낯선 도시 수원외 원천골에서 내가 새 보금 자리를 틀던 날이었다. 새 보금자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설레이던 마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씻겨지고 바래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이곳 원천골에서 10년의 세월 속에 만났던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 매일 만나지는 않아도 이제는 가족같이 정겹게 느껴지는 마음은 나 혼자만의 마음일까?

10년 전 그 해 여름은 무척 더웠다. 에어컨이 없어서 더위 속에 허덕이면서 밤잠을 설쳤던 그 여름은 10년이란 세월 고개를 넘어가면서 다시 또 무더운 2004년의 여름을 만들고 있다. 새로움 속에서도 옛 모습을 잊지 않고 되새기는 자연의 신비로움은 나에게 행복한 미래의 10년을 바라보게 한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원천골 사람이 된 재활의학과 가족들과 「함께 가는 우리들」의 가족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새로운 원천골 가족들의 모습을 그려본다.

이곳 원천골을 찾아 온 새 식구들의 지치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고 새로이 향기나는 원천골 아주인의 심장으로 바꾸어 주어 무심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들의 심장이 서로를 알아보고 「공황 공황」 뛰는 사랑의 심장으로 바꾸어 가고 싶은 소망을 오늘도 원천골로 출근하는 길 속에서 생각해 본다.



나 은 우 주임교수 / 재활의학과학교실

선인(善仁)이란 노자 도덕경에서 인용한 말로 인을 잘 베푼다는 뜻이다. 의과대학 지하 카페테리아에 있는 선인재(善仁齋)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즐기는 장소를 의미한다.



# 뇌종양, 의사로서 가장 보람 느낄 수 있는 분야

**전** 공의 수련을 마친 후 신경외과학을 전문의로서 다시 한번 수련 받게 되면서 「어떤 분야를 세부전공으로 택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다. 그러던 중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던 환자를 만나게 되었다. 두 번의 수술, 방사선 치료, 수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성 뇌종양이 재발한 젊은 여자였는데, 이미 최초 진단 후 상당기간이 지났고 뇌척수액을 따라 종양이 퍼져 희망은 별로 없는 상태였다. 대부분의 악성 뇌종양 환자들은 말기에는 의식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주로 가족에게만 상태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 환자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동안 투여했던 항암제와는 다른 약제를 이용한 항암치료를 권유하였다.

남편이 병실로 돌아간 후 얼마 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찾아와서 「그 동안의 치료 과정에서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설명을 듣고 결정하였는데 왜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순간 당황이 되었지만 먼저 사과한 후 다시 한번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방침을 설명하여 주니 너무나도 담담하게 「자신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고는 두 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더 받았다. 그리고 그 환자는 항암제 투여기간 동안 내내 밝은 표정으로 힘든 과정을 이겨냈으나 결국 성탄절 아침에 사망하였다. 뇌종양이 아닌 타 장기 암 환자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상하게도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었고, 질병 치료 외에 환자나 그 가족들과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면서 교감을 가질 수 있는 뇌종양 분야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악성 뇌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경교종은 종양세포와 정상 조직 간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주변 정상 조직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수술로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를 하여도 자주 재발하게 된다. 근래에 분자 세포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고식적인 치료법 외에도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과 인체 내 강력한 면역반응 유발 세포인 수상돌기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악성 뇌종양의 완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뇌종양 세포의 침투성(invasion)에 관한 것이다. 신경교종 세포는 신체 내 타 장기의 암과는 달리 중추신경계 밖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원래 종양 발생 위치 근처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국소적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성공적 치료의 관건이 된다. 주변 정상 조직으로의 침투는 종양세포



가 세포의 간질(extracellular matrix)과 반응하여 단백분해효소(proteolytic enzyme)를 분비한 후 이동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integrin, matrix-metalloproteinase, cathepsin 외에 여러 성장인자(growth factor)들이 관여하게 된다. 종양세포는 침투력이 강한 경우 증식력이 약하고, 증식력이 강한 종양세포는 침투력이 약한 성질이 있다. 따라서 침투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종양세포의 침투력을 약화시키면 국소 재발도 방지하면서 종양세포를 증식기에 들어서게 하여 기존의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악성 뇌종양의 침투성에 대한 연구는 뇌종양에 대한 타 연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다. 아마도 동물실험에서 인체 내 침윤성 뇌종양과 같은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타 장기로 전이가 매우 드문 악성 뇌종양의 특징에 관한 연구이고 이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면 악성 뇌종양의 치료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당히 매력적인 연구분야라고 생각한다.

김 세 혁 교수 / 신경외과학교실



# 참빛 장애인의 집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지난 6월5일 토요일 재활의학과 의료진 및 치료사들과 원무팀 직원들이 모여 장애인의 집으로 봉사활동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위해 카메라를 가지고 동행했다.

화성시 향남면에 위치해 있는 참빛 장애인의 집은 60여명의 정신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다. 직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방으로 들어가자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마치 우리를 기다린 듯 삼삼오오 모여 들었다.

일단, 재활의학과 나은우 주임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평소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했던 신체 장애인들의 상태를 살펴봤다.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원장의 설명에 따라 함께 간 재활의학과 치료사들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실시했다.

주로 침대에 누워 지내고, 이동할때만 휠체어를 이용하던 한 장애우는 나은우 교수와 함께 침대 난간을 의지하여 본인의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들 장애인들의 상태를 진찰한 나은우 교수는 『치료를 제대로 받고, 보장기구 등을 이용한다면 지금 상태보다 훨씬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매우 많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의료진들이 방 안에서 진료를 하는 동안 원무팀 직원들은 팀을 나눠 빨래와 다림질 등을 도왔다. 수백 벌의 옷을 빨고 짜고 행구는 동안 직원들의 얼굴은 땀으로 흥건해졌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보람찬 미소가 가득했다.

직원들과 함께 두 팔을 걷어 부친 장학수 원무팀장은 『의료원 1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게 된 봉사활동이었는데, 우리의 작은 힘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원무팀 직원들과 함께 적극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장애인들의 손짓, 발짓 하나 하나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김새와 표현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며,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손 미 선 / 홍보팀〉



# 주임교수에게 전권을 위임한 아주대 의대 교수진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 말에는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에 사사(私事)로움을 배제하라는 분명한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본다.

한번은 어느 신생 지방 의대에서 교수들을 초빙한다고 하여 필자도 제자를 추천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임 교수 임용 지침이 이른바 「안배(安配)」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망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이때의 「안배」란 주임교수가 어느 대학 출신이니 부교수급 교수는 어느 대학 출신으로 하고, 그 외 조교수급 교수는 또 다른 대학 출신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어찌 보면 학연이 난무한 현실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학문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하루는 신생 의과대학의 주임교수를 맡게 되었다는 제자의 소식을 받았는데, 바로 그날 우연히 그 의과대학의 학장을 만났다. 그래서 필자의 제자가 그 대학의 주임교수로 가게 되었다고 인사를 하니 정작 학장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 신임 교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학장도 모르게 재단 차원에서 교수 인사 절차가 진행되고 결정되었으니 어찌 개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폐단을 극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별 교수진 구성에서 일정한 대학 출신의 비율에 한계를 두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각 대학교에서 교수진을 신규 채용할 때는 일간 신문 지면을 통해 공모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필자는 국내 대학 사회

에 만연한 교수 인사 관행을 극복하고, 신생 아주대 의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참신한 방법으로 훌륭한 교수진을 확보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대학교와 대우그룹은 불가분의 깊은 관계가 있는데, 만약 사장급 또는 회장급 임원들만 해도 1백여 명에 이르는 대우그룹에서 인사 청탁을 하기 시작하면 어찌 될 것인가. 신임 교수 채용 과정이 혼탁해지는 것은 물론 인사 정책의 기본 틀이 크게 흔들릴 게 분명했다. 그래서 필자는 신생 아주대 의대의 기틀 마련에 정열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효규 당시 총장님과 김준엽 대우학원 재단 이사장을 뵈고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다.

대학병원 개원에 즈음하여 많은 신임 교수들을 모셔 와야 하는데, 외부에서 인사 청탁의 가능성이 예측되니 총장님과 재단 이사장님 차원에서 그걸 막아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였다. 그리고 좋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면 객관적 심의 절차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천의 좋은 의미는 살리되 청탁은 단호히 거절하겠다는 뜻이었다. 필자의 이런 의중이 당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실에도 전달되었던 것으로 안다.

우리 신생 아주대 의대 인사 정책의 또 다른 특색을 든다면 의대 각 교실별 주임교수의 임명 방법이었다. 아주대 의대는 대학병원 개원에 즈음하여 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교수진을 확보함에 있어 먼저 주임교수직 후보 분들과 함께 조용한 가운데 선발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장의 그늘을 벗어나는 데 주저하는 후보 교수는 과감

# 인사



히 배제하였다. 다시 말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임교수직에 선임된 교수에게는 해당 교실의 타 교수 인사권을 위임하였다. 주임교수가 함께 일할 교수진을 찾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올라온 후보 교수를 임명하는 데 있어 절차상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만을 심의하였다. 이는 아마도 국내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로 생각된다. 대학 행정부서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신입 교수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일간지를 통해 공개 모집해야 한다는 사실을 필자에게 상기시켰다. 필자도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지침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이 학문의 깊은 뜻과는 일치되지 않는다고 믿었기에, 비공개 모집에 따른 행정 처벌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천명하며 우리의 인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바 있다.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과 처음 면담했을 당시(참조 : 아주대의료원소식지 2004. 3.), 필자는 우리 대학병원 개원 전에 각 교실, 각 과별로 젊은 의사를 선발하여 선진 외국 병원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동의를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주임교수 중심 체제를 구상하고, 주임교수에게 인사권을 위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주임교수의 동의와 「축복」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을 선발한다는 게 논리에 맞지 않고, 해외 교육을 받고 돌아왔을 때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예상됨에 따라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우리 신생 아주대 의대가 대학병원 초기의 어려움을 나름대로 잘 극복하면서 발전을 거듭한 것은 아주 가족 모두의 한마음 된 희생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투명하고 공정한 신입 교수 채용과정도 큰 몫을 하였다고 필자는 믿는다. 우리 대학의 어른들이 인사 정책에 시종일관 버팀목 역할을 해주셨기에 우리 신생 의대의 경쟁력이 싹틀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넓은 아량에 다시금 경의와 고마운 마음을 보내고 싶다.



이 성 낙 석좌교수 / 피부과학교실



#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철 감염질환 비상!



**날**씨가 후덥지근해지고 있다. 올 봄 황사는 적어서 다행이었지만 더위가 일찍 오고 오래 갈 거라니 한여름 폭염을 생각하면 지금의 더위는 그래도 참을 만한 거라고 위로한다.

## 올 여름, 「말라리아」 시작

며칠 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머리가 아프다고 부모가 뇌수막염을 걱정하며 응급실로 왔다. 덩치는 우람한데 얼굴엔 여드름 자국이 있어서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불안한 사춘기 소년이었다.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야 할 시기에 아프니 부모가 모두 불안해 하였다. 다행히 말라리아로 진단이 되어 먹는 약만 처방해 보냈는데 「아! 여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덥고 습한 기후가 아니라 「벌써 말라리아가 시작되었구나!」라는 생각이 여름을 더욱 실감나게 하니 직업따라 계절을 느끼는 방법도 달라지나 보다.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주로 휴전선 근처에서 발생하는데 5월부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7, 8월에 정점을 보인 후 10월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위험지역은 파주, 연천, 김포, 동두천, 철원, 화천, 고성, 강화, 옹진이고 이 중 강화는 인구 10만명 당 100명 이상 발생한 고위험지역이다. 작년에는 인천과 고양시에서도 많이 발생했다. 「어디 여행한 적 없느냐」는 우리 질문에 환자는 「올해는 꼼짝없이 집과 학교에만 있었다」고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작년 여름 강화로 수련회를 가서 모기를 엄청 물려왔다」고 하였다. 「그럼 그렇지!」 작년엔 몸에 들어왔던 말라리아가 수개월간 간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이번에 증상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역 군인이나 군 전역자에서 발생이 많지만 위험지역 민간인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50%에 달하므로 말라리아 발생지역을 여행하는 경우는 모기를 조심하고 또 열이 나는 경우 말라리아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옛 어른들이 하루 걸러 열이 난다고 「하루거리」라 하였으니 그 이름만으로도 「열」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오한이 심하고 두통이 있으며 2~3시간 열이 나다가 땀을 많이 흘리면서 해열된다. 열이 안날 때는 거짓말같이 멀쩡한 경우가 많다. 치료는 3일간 약을 먹고 2주간 재발 예방약을 복용한다.

##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 발령

여름철이면 무좀이 성해지면서 봉소염이 흔해지는데 봉소염은 피부와 피하조직에 염증이 생겨 빨갱게 되고 아프며 오한이 있고 열이 난다. 무좀으로 무른 발가락 사이로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평소엔 봉소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잘 하던 전공의들도 여름이 되면 혹 비브리오 패혈증의 전조증상이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그만큼 전공의를 벌벌 떨게 하는 응급질환이다.

1994년부터 질병관리 본부(전 국립보건원)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4월부터 해수, 어패류, 갯벌, 수족관에서 비브리오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 균이 발견되는 경우 유행예측사업의 일환으로 비브리오 주의보를 내린다. 올해는 6월4일 비브리오 패혈증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균에 오염된 어패류 취급 중 피부 상처를 통하여거나 해수에 접촉하여 걸리고, 주로는 오염된 어패류 생식으로 감염된다. 만성 간질환, 만성 신장질환, 당뇨병환자, 면역억제제 사용자, 알콜중독자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주로 6~9월에 발생하는데 갑작스런 오한, 발열, 근육통으로 시작하여 발강게 시작된 피부 병변이 급격히





진행하여 수포성 괴사가 생기고 쇼크로 진행한다. 수술로 썩은 부위를 광범위하게 제거해야 하는데 워낙 진행이 빠르고 깊어 수술하고 나서도 상당기간 이식수술과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다리를 절단하기도 한다. 사망률이 50~60%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예방을 위해 어패류 보관시 다른 식품과 분리해서 냉장 보관하고, 56℃ 이상의 열로 가열하여 충분히 조리한 후 섭취해야 한다. 만성 질환자는 6~10월에 생식을 금하고, 해안 지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갯벌에서 어패류 손질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해변에 갈 때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상처가 났을 때는 맑은 물로 씻고 소독해야 한다. 횡집에서는 18℃ 이하의 원거리 심해수를 수족관 물로 사용하고 어패류 조리 기구를 끓이거나 열소소독을 해야 한다. 꽃게를 다루다가 손을 약간 다쳤는데 조심하느라 회도 안 먹고 그냥 바닷물에 발만 조금 담갔다며 괴로워하던 간경화 환자가 떠오른다. 끝까지 넘기면 그 맛이 일품이라던 전라도 할아버지의 산낙지도 생각한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세균성 이질, 식중독 ... 극성!**

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 세균성 이질 발생이 연중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어디 이질 뿐인가. 엄마가 만든 김밥이 귀해지면서 어느 김밥 가게에서 산 햄이며 계란이 문제가 되어서 식중독 사고도 날 것이다. 살모넬라증이다. 작년에는 장출혈성 대장균증이 집단 발병하였는데, 이는 대형 유통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사용한 단체에서 발생하였다. 쇠고기 등 육류 제품이 오염되었던 것으로 본다. 이런 식중독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사이에 전체 식중독의 80%가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집단 식중독의 대부분이 미생물에 의한 것으로, 이 기간에 기은

과 습도가 높아 균이 증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되면서 수인성 전염병이 감소했지만 집단 급식, 외식 산업의 규모가 커지는데 비해 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개념 및 지도는 아직 미흡하다.

**여름철 감염질환 이렇게 극복하자!**

질병관리 본부에서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여름을 건강히 보낼 수 있는 간단한 수칙 네가지를 지키자는 것이다. 첫째 반드시 끓인 물을 마시고, 날것을 먹지 않는다. 둘째 손발을 깨끗이 하는 등 개인 위생에 유의한다. 셋째 조리기구는 청결히 사용하고 도마와 같은 식품별로 따로 사용해 교차오염을 예방한다. 넷째 음식물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서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 것, 나는 얼마나 잘하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우리 집 도마는 생선 다루고, 채소 썰고 샐러드 만들고 모든 일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여름이다.



최영화 교수 / 호흡기내과학교실



# 아동학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의뢰된 환아를 전담으로 진료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의 쉼터 마련에 힘쓰는 등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아과 배기수 교수가 지난 5월5일 어린이날 「아동복지증진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에 배기수를 만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지난 어린이날 대통령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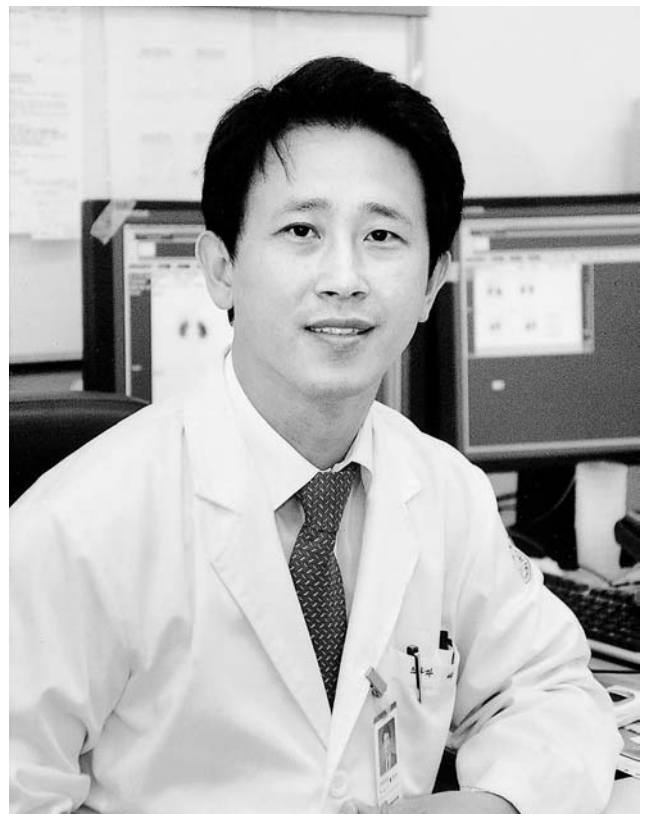
이름 없이 열심히 희생하며 봉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죄송하게도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아동 건강증진문제와 아동학대 예방을 도왔던 것이 알려져 이번 어린이 날에 「아동복지증진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들 앞에 알려진 만큼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소아과 전문의로서 많은 아이들을 진료하다 몇번의 기회로 학대아동을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상태가 친부모가 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전신 외상, 극심한 영양실조, 골절 등등. 여기에 우리 병원 사회사업팀과 아동학대예방센터 분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는 여러 사회단체,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의 일이 너무 힘들고 업무여건이 열악하여 「봉사활동 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걱정거리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충분히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지 자신들의 처우개선은 뒷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에게 커다란 후원이 될 수는 없더라도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병원진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매우 죄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신문, 방송을 통해 여럿 알려지면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전국에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중 경기지역의 아동 학대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경기도에 학대받는 아동이 더 많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아동학대 예방 관련업무가 활성화 되어 그 만큼 많은 아이들이 구원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마땅한 법률이 없어 고통 속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동들을 학대받는 환경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어 신속한 현장



조사, 사례관정, 보호조치, 보호자 교육 등의 다양한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활발한 활동이 알려지게 되면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 호응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또한 병원 차원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학대를 받다가 병원에 찾아오게 되는 아이는 정말로 「구사일생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모르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대책마련이 없이 지나쳐 버린다면 이들은 계속 신음 속에 지내거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에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약하여 입원 및 수술, 치료에 대한 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에는 각 분야 임상 의사와 행정직원 12명으로 구성된 「학대아동보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에 어려움을 느끼는 임상사에게 도움을 주고, 아동학대예방센터,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5월31일, 6월1일 양일간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 전액을 학대아동들의 진료비로 기부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인듯 합니다. 학대받는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주신다면 ...**

학대아동을 줄이기 위해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학대받는 아동들을 방치하지 말고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곧 나의 아이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고 이들이 폭력·문제 청소년이 되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들을 국번없이 1391로 연락하면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관심과 재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은 너무 적어 아이들이 치료를 받거나 쉼터 유지비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학대아동들을 돕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여 주신다면 ...**

저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진료부분을 돕고, 관련 임상과 의사에게 지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모든 일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예방센터를 지원하고 외부 관련기관과 협조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정리 / 홍보팀 우 효 정〉



# 일본 기흉연구센터를 다녀와서

기흉이란 흉곽 안에 공기가 차서 폐가 허탈된 상태를 말한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기흉이 생기는데 주로 체중에 비해 마르고 키가 큰 젊은 남자에서 잘 생기는 자연발생 기흉은 인구 1,000명 당 1꼴로 생기고, 노년층에서도 폐질환으로 인한 이차성 기흉이 종종 생긴다. 드물지만 30, 40대의 여성에게 월경과 동반하는 기흉이 생기기도 한다. 기흉 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율이 높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흉관삽관만 한 경우에는 재발율이 30~50% 이상 되며, 수술을 한 경우에도 5% 전후의 재발율을 보인다.



▲ 닛산 타마가와병원 수술실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가 기흉센터장 Dr. Kurihara, 그 옆이 이성수 연구강사

지금부터 10년 전 내가 흉부외과를 선택할 때 일본에는 기흉이라는 병 하나만을 열심히 연구하는 병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흉부외과 전공의 시절에는 심장수술, 폐암수술, 식도암수술 등 큰 수술을 중심으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기흉은 자연히 가벼운(?) 병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환자를 많이 보면 불수록 기흉이 쉬운 병이 아니며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1987년부터 현재까지 기흉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 동경에 위치한 닛산 타마가와병원의 기흉연구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타마가와병원은 동경 시내에 위치한 300병상 규모의 그다지 크지 않은 종합병원이었다. 기흉치료 및 연구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으며 약 6000례 이상의 수술을 하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흉부 단순촬영이나 흉부 CT로 기흉을 진단하는데 이곳은 흉강 조영술을 추가하여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진단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그것도 방사선과 기사가 아닌 흉부외과 의사가 직접 흉강 조영술을 하면서 기흉의 원인이 되는 폐기포를 발견하려는 모습에서 기흉연

구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느낄 수 있었다.

치료면에서도 단순한 폐기포 절제술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기흉수술을 아주 세심하게 정성을 다하여 수술하기 때문에 하루에 3명만 예약하여 수술하고 있었다. 이에 길게는 한 달씩 수술이 밀려 있었다. 기흉 환자들은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

주 가는 흉관이나 휴대용 흉부 흡인기 같은 여러 가지 장비를 연구하고 제품화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큰 수술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기흉이라는 병에 대해 진지하게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폐암이나 식도암 같은 병보다 훨씬 유병률이 높고 더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본 기흉연구센터와 교류하면서 아주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센터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기흉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보고자 한다.

이 성 수 연구강사 / 흉부외과학교실



# 「O양」의 턱수술



**한** 동안 「O양」의 동영상이 인터넷 상을 떠돌면서 역시 IT 강국의 면모와 부작용을 경험했었다. 그런 「O양」이 턱수술을 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명 휴양지인 산타바바라에서 시행받음으로서 또 한번 영상 매체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 뒤로도 결혼에 이르기까지 많은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듯 하다.

본인은 성형외과 의사이기애 이 「O양」의 턱수술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 일단 미국서 집도한 구강 악안면외과 의사인 닥터 아넷(Dr. Gary F. Arnett)이 꽤 유명하고 실력있는 턱수술의 대가였기 때문이다. 내가 「O양」을 직접 진단했거나, 수술을 한 것이 아니기에 마스크 검사에 발표된 수술의 내용을 빌면, 턱관절 이상을 동반한 부정교합으로 일차 수술을 국내에서 했으나 문제가 생겨 이차로 미국서 상·하악 동시이동술을 시행받았다고 한다.

이 상·하악이동술이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무척 도전적인 영역이다. 원래 이 수술은 부정교합, 즉 상악과 하악의 뼈 모양에 의해서나, 치아 배열의 부조화를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그러므로 교정 치과 의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부정교합의 치료를 위해서만이라면 환자나 의사, 치과 의사에 의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하다. 물론 섬세한 수술 계획은 교정치과 의사와 같이 세워야 한다.

요사이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이처럼 기능과 미를 겸한 악안면 전환술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종전의 악안면 윤곽술이라고 명명되던 광대뼈를 깎고, 턱을 치고 하는 수술과는 판이하다. 근간은 위에서 언급한 상악과 하악의 이동술을 이용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상·하악 전돌증이다. 쉽게 이해하려면 입이 튀어나온 경우이다. 심한 경우는 웃을 때 말처럼 잇몸이 들어나서 맞선을 보러가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어

야 하는 경우이다. 특히, 요사이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달려나옴으로써 거울로 보는 정면 얼굴과 함께 옆 얼굴에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 찍을 때 옆 얼굴이 자신 있어서 약간은 비스듬히 내지는 다른 각도의 사진을 선호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 제일 눈에 잘 들어오는 눈, 코가 관심이었지만, 이제는 코 아래의 모습 또한 지대한 관심인 듯하다. 또한 이 부분이 드라마틱하게 본인의 변화를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턱을 깎고 싶다는 환자들의 많은 경우가 하악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측면 하악의 두드러진 부분은 턱 윗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측면의 하악골만을 줄인다면, 하악의 정면 턱 부분이 더 두드러진다면 지 길어 보이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얼마전 영화에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얼굴 전체를 옮기는 수술이 보도된 적이 있다. 물론 부분적 성공은 있었지만, 면역학적 부작용이나, 정치성의 문제 등을 떠나, 얼굴 골격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치아는 잘 맞는데 턱 모양의 기능적, 미용적 전환을 요하는 경우는 매우 세밀한 성형외과 의사의 진단을 요한다. 이와 함께 교정치과 의사의 진단 및 수술 전, 수술 후 처치가 중요하며, 수술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 교정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세밀한 상호 진단은 필수적이다. 또한 치료기간이 술전, 술후 짧게는 2~3개월에서, 2~3년 까지도 걸릴 수 있으므로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겠다.

#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NEWS

의료원 ▶▶▶

## 아주대 의대 의학부 사상 최고 경쟁률 기록

- 수시 모집에서 경쟁률 187.3:1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부는 지난 6월14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4명 모집에 749명이 지원, 「187.3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의과대학 간호학부 역시 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아주대학교 일반전형 전체 경쟁률도 150명 모집에 7,825명이 지원하여 52.3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로 5년째 실시하고 있는 아주대학교 수시모집은 1단계 전형에서 적성검사를, 2단계 전형에서는 영상강의와 면접을 실시한다. 1단계 전형인 적성검사는 오는 7월 25일 실시될 예정이다.

### 의료원 10주년 「아주랑 한마당」 바자회 수익금 피학대아동 진료비로 전달



의료원은 6월29일 화요일 오후 12시 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피학대아동 진료비 지원 기금」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피학대아동 진료비 지원 기금은 지난 5월31일, 6월1일 양일간 의료원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아주랑 한마당」 바자회의 수익금, 총 11,369,545원이다.

의료원은 2002년 3월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진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16명에 대해 12,100,450원의 진료비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조성된 기금을 통해 더욱 많은 피학대 아동의 치료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효철 의료원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한 바자회의 수익금을 다시 지역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경기도 내 피학대 아동의 치료를 위해 의료원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효철 의료원장은 이 자리를 빌어 바자회에 적극 도움을 준 「의료원 신협, 아주대학교 소비조합, 빠리바게트(아주대점), LG, 유니레버, 한올제약, CJ, 종근당, 일동약품, 부광약품, 동아제약, 동원샘물, S&K」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성낙 석좌교수, 인당의학교육대상 상금 의료원 발전기금으로 기부

피부과학교실 이성낙 석좌교수가 지난 5월27일 수상한 인당의학교육대상 상금 전액을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이성낙 교수는 후학 양성과 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아 제8회 인당의학교육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상금 500만원 전액에 500만원을 더해 1,0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전달식에서 이성낙 석좌교수는 『후학 양성과 의학 발전을 위해 더욱 노고하라는 뜻으로 받은 상인만큼 이 기금이 후세 의학 발전을 책임질 훌륭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의료원, 3차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실시

의료원은 지난 6월13일 일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수원시 지동 제일교회에서 3차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의료진을 비롯한 25명의 교직원이 참여하여 5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진료했다.

의료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의료원 내 기독교모임인 신우회가 주축이 되어 지동 제일교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의료원은 지난 6월24일부터 8월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별관 1층 교육실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비상시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전 교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6월 교직원 월례회 개최 - 개그맨 이홍렬氏 초청 특강

의료원은 6월23일 수요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6월 교직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2004년 5월 모범교직원으로 선정된 흉부외과 김형태 레지던트를 시상하였으며, 2부에서는 개그맨 이홍렬씨를 초청하여 「유머가 긍정적 사고를 만든다」는 주제로 교양특강 시간을 가졌다.



**「고혈압」 주제, 무료 건강강좌 열어**

의료원은 지난 6월2일 서호노인복지회관에서 10주년 무료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15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순환기내과학교실 신준환 교수가 「고혈압」을 주제로 강의했으며, 강의 후 혈압 및 EKG 측정 등 간단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의과대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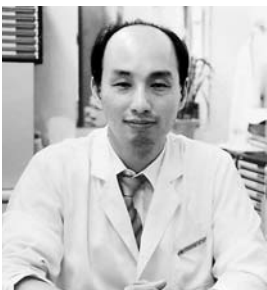
**소화기내과학교실, 「Advanced Gastroenterology Update 2004」 개최**



소화기내과학교실은 지난 6월20일 일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병원 별관 대강당과 지하 1층 아주홀에서 「Advanced Gastroenterology Update 2004 (Post-American DDW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매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미국 소화기병 주간(DDW) 동안 발표되는 총 4,000여건의 새로운 논문 중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논문을 골라 ▲ 상부 위장관 질환 ▲ 하부 위장관 질환 ▲ 상부 소화기내시경 ▲ 운동성 질환 ▲ 간질환 ▲ 췌장질환 ▲ 담도질환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시 리뷰하는 장으로, 소화기병의 세계적 연구추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행사로 인정 받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은 이번 컨퍼런스에는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중앙대 의대, 인제대 의대, 순천향대 의대, 한양대 의대, 영남대 의대, 한림대 의대, 카톨릭대 의대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미국 DDW에 발표된 국내 포스터들이 다시 전시됐다.



**신경외과학교실 윤수한 교수, 미국 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수상**

신경외과학교실 윤수한 교수가 지난 5월1일부터 6일까지 미국 올란드에서 열린 미국 신경외과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 「부드러운 교정모를 사용하여도 두개골의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는 두개골이 찌그러진 두개골 사두증에서 교정모를 통해 두개골의 모양을 바로잡아 주어도 두개골의 부피에는 변화가 없으며, 두개골 사두증으로 인한 사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비인후과학교실, 「제10회 아주 이(耳)과 심포지움」 개최**

이비인후과학교실은 6월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별관 대강당에서 「제10회 아주이과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중이의 기초연구(Middle Ear Research)」를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의료원 10주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이과 기초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을 초빙하여 중이의 기초연구에 대한 고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움에서 연세대 윤주현 교수는 「중이상피세포의 점액 유전자 분화와 신호전달경로」에 대해, Shimane 대학의 H. Kawauchi 교수는 「중이 및 비인강의 선천성 및 후천성 면역」에 대해, 아주대 문성균 교수는 「항생단백질 조절에 있어 중이 점막의 배양방법과 신호전달경로」에 대해, 박기현 교수는 「중이 진주층의 병인에 연관된 기초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미네소타대학의 전성균 교수가 「중이염에 의한 내이의 생화학적 병리」를, Loma Linda대학의 정태건 교수가 「중이염의 병인에 연관된 염증 매개체」를, House Ear Institute의 임종재 박사가 「중이염 병인의 난제와 앞으로의 발전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응급의학과교실 조준필 교수, 후즈 후 인명사전에 등재**

응급의학과교실 조준필 교수가 세계적인 인명기관인 마르키스사에서 발간하는 후즈 후(Who's who)에 「의학 및 보건분야」 업적자로 등재될 예정이다.

조준필 교수는 오는 2004년 8월에 발간되는 2004년, 2005년 판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에 등재될 예정임을 최근 마르키스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후즈 후」는 세계적으로 이룬난 현존 인물에 관한 인명사전으로,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과학·예술 분야 우수 업적자 2만8천명을 선정하여 직업, 경력, 취미, 가족관계 등을 게재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성인병 및 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숙박검진 및 암검진 도입**

아주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는 숙박검진 및 암검진을 새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숙박검진은 1박2일에 걸쳐 PET CT, MDCT, MRA &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성인병 및 암, 뇌졸중 예방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검사시 전문요원이 1:1로 동반하여 안내한다. 또한 입원 첫날 주치의와 평소 궁금하던 건강문제를 비롯한 가족력, 건강 이력 등을 상담하여 검진프로그램에 반영하며, 퇴원일에 검진결과의 대부분을 주치의로부터 설명들을 수 있고, 검진결과는 CD-Rom으로 제공한다. 숙박검진 비용은 380만원이다.

한편, 암검진은 한국인의 질병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진 프로그램으로, I형과 II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검진 I형은 230만원, II형은 160만원으로 8시간 정도 소요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건강증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원 ▶▶▶

Genome Research Workshop 2004 개최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연구센터는 지난 6월19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9시30분까지 병원 아주홀과 지하 2층 연구센터에서 소화기 임상을 위한 「Genome Research Workshop 2004」를 개최했다.

유전체학(Genomics)에 대한 이해 및 실험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 개최된 이번 워크샵은 아주대 합기백 교수를 비롯하여 유운석, 여말희 박사, 한양대 김용석 교수, DNA Link의 이종은 박사, Genomic Tree의 안성환 박사, 연세대 조상연 박사의 「유전체 연구의 이론 및 응용분야」에 관한 강의와 cDNA microarray와 Proteome 실습으로 진행됐다.

간호부, 협력병원 연수 실시

간호부는 6월22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응급의료센터 회의실 및 병원 지하 1층 수석실에서 협력병원 연수를 실시했다.

지역병원과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연수교육은 100명 이상 협력병원의 주간호사 또는 주임 간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응급의료센터 간호과정」과 「집중치료실 간호과정」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현지평가 실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수원시 등은 5월31일부터 6월8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16개소 중 성빈센트병원을 비롯한 13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의료인력, 장비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한 현지평가를 실시했다.

현지평가는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문 ·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Newspaper)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6.1	중앙일보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	다이어트 식품으로 세계 때우면 부정맥...
6.1	국민일보	신경통증클리닉 김찬 교수	만성통증과 얼굴통증-침술만하다 버티면 진짜 痛된다
6.2	조선일보	소화기내과 합기백 교수	홍삼, 헬리코박터 감소시켜
6.2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인라인스케이팅의 성장판
6.8	중앙일보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	폐광 오염 근본대책 세워라
6.9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부유방
6.10	경인일보	소화기내과 합기백 교수	위암 예방 '홍삼' 불티
6.16	중부일보	소화기내과 합기백 교수	홍삼, 위질환 예방 효과 입증
6.16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목밀샘기능항진증
6.16	한겨레	소아과 이수영 교수	물놀이 하고 싶은데... 아토피 무서워
6.23	한겨레	진단방사선과 조재현 교수	영상으로 잡은 건강이야기-갑상선암
6.23	조선일보	성형외과 박명철 교수	당신이 아는 '심처상식' 다 틀렸다
6.25	경인일보	호흡기내과 최영화 교수	건강하게 정마칠 나가-물도 주변도 청결...

방송(Broadcasting)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6.1	SBN 뉴스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희귀질환 포괄적 지원정책
6.2	KBS 행복충전100세인	중앙혈액내과 임호영 교수	질병완전정복 - 폐암
6.6	MBC 시사매거진2580	신경외과 윤순환 교수	같은 아이들의 꿈
6.15	KBS 생로병사의비밀	내분비대사내과 이관우 교수	여성 절반의 고통, 갑상선 질환
6.15	SBS다큐	내분비대사내과 이관우 교수	풍요의 재앙, 비만-그 새로운 해법
6.16	KBS 추적 60분	유전학클리닉 김현주 교수	희귀병과의 싸움 나는 살고 싶다
6.22	KBS 생로병사의비밀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암종모색, 희망-7인의 생명일기

건강 마라톤대회,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음악회 개최

병원은 지난 6월1일 진료 개시일을 맞아 건강 마라톤대회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건강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교직원 및 가족, 협력업체 직원, 협력 병(의)원 직원 등 300여명은 화합과 단결을 다지며 10km 구간을 완주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는 병원 로비에서 환자 및 보호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립 팝스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개최했다.



## 새 생명을 주신 고마운 분들

지난 2년간 새 생명을 얻은 나는 내 인생에 있어 너무도 큰 일을 경험하였다.

3년전 소화가 너무 안돼 약국을 찾았다. 지난 2년 6개월간 간경화로 서울에 위치한 모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었기에 약사에게 간경화에 큰 해가 안되는 소화제를 부탁했다. 그 날 밤 머리가 너무 아프고, 황설수설하고, 더웠다 추웠다 하는 증상이 계속되어 가족의 도움으로 집에서 가까운 국립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증상을 얘기했더니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말에 다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혈류를 타고 뇌로 들어가 「간성 혼수」를 일으킨 것이라 설명했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의 치료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다른 병원을 계속 다녔다. 그러던 중 작년 6월 심한 어지럼증으로 다시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게 됐다. 반복되는 입원과 치료, 얼굴과 손발이 심하게 붓는 부종 등에 지친 나는 의사에게 「간이식」을 받고 싶다고 했다.

의료진은 아주대학교병원 장기이식팀과 연결을 시켜주었다. 그 때 인연이 되어 만난 것이 외과 오창권 교수님이다. 교수님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간이식과 간이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여 주셨다. 『간이식 환자에 등록이 되어도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과 낙천적인 성격으로 맘은 편했고, 겹쳐서 내 상황을 받아 드렸다.



약 10개월이 지났을까. 뇌사자가 있는데, 간을 기증한다고 하니 병원으로 와 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나보다 먼저 등록된 사람도 많을 텐데... 갑작스런 연락이 믿어지지 않았다.

검사와 상담 후, 올해 4월28일 오창권 교수님과 왕희정 교수님의 집도하에 간이식을 받았다. 수술결과가

좋아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회복 후 퇴원을 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수원으로 이사한 것도, 아주대학교병원 오창권 선생님과 만난 것도, 10개월만에 간을 기증받게 된 것도 모두 내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한 필연적인 인연이 아니었나 싶다.

너무도 감사한 분들이 많다. 오랜 병고와 힘든 투병생활에서 용기와 사랑으로 지켜준 가족, 항상 편하고 용기를 갖게 하시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오창권 교수님, 계속되는 질문에도 짜증 한번 안내셨던 김지혜 장기이식코디네이터, 항상 친절한 병동 간호사 선생님들, 특히,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나에게 간을 주신 너무도 감사한 분. 내게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고마운 분들이다.

이 분들의 고귀한 정신과 사랑 그리고 희생정신을 생각하며 평생을 열심히, 하느님 사랑, 이웃사랑을 전하며 살고자 다짐해 본다.

권 영 숙 님 / 경기도 수원시 거주

제 몸을 나누어 또 다른 생명을 만드는 장기기증은 세상의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가슴시리도록 고귀한 이 사랑을 베푸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장기기증 TFT ·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문의전화 031-219-5547 | 016-9277-5376



# 이럴 땐 신장질환 의심!

**신**장에 생기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여 신장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을 몇 가지로 꼬집어 말하기 쉽지 않지만, 신장질환들 중 흔한 질환 두 가지만 골라 그들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구체 신염은 신장내에서 피를 걸러서 피 속에 있는 노폐물과 과잉의 수분과 전해질만을 뽑아내어 소변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는 사구체(糸球體, 모세혈관이 실처럼 뭉쳐져 있다고 하여 생긴 단어)에 염증이 생겨 빠져 나오지 말아야 할 것들(주로, 단백질과 적혈구 등)이 소변으로 빠져 나오는 질환이다.



사구체 신염은 종류에 따라 몸이 붓는 증상과 함께 소변에 거품이 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 주로 감기 후 소변색이 갈색 혹은 붉은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급성기에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 놀라게도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향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성 신부전증 혹은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할 우려가 있어 조기에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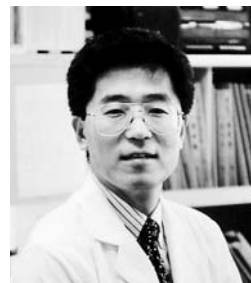
만성 신부전증(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신장기능의 저하가 생기는 질환으로서 원인은 당뇨 합병증, 고혈압 합병증, 사구체 신염 등이 90% 차지함)은 간단한 피검사와 소변검사로 쉽게 알 수 있지만,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어 심각한 상황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은 편이다. 증상은 신장기능의 저하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만성 신부전증 중기에 접어들면 고혈압이 흔히 나타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다가 몸이 안 좋은 상황,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린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증상(입맛이 없고, 메스껍고, 때로 부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고, 계단이나 언덕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찬다)이 생길 수 있으며, 말기에 가면 중기에 가끔 나타나던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심하게 나타난다.

이외에도, 신장질환이 있으면 부종이 나타나 눈꺼풀이 무겁고, 주먹을 쥐면 뻑뻑하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푸석푸석해 보인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종은 약물(주로, 일부 고혈압, 관절염 약제 중 호르몬 제제와 소염 진통제 등)의 부작용, 과로, 혈관질환, 비만 등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다. 또, 일반인들이 크게 걱정하는 혈뇨는 암, 사구체 신염, 요로 결석 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증상인 경우가 많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이렇듯 한가지 증상으로 신장질환을 의심하기는 힘들며, 증상이 있을 때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가지 증상으로 질병을 너무 속단하는 것도 금물이지만, 가벼운 증상이라도 앞으로 치명적인 예후의 질병을 알리는 적신호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 흥 수 교수 / 신장내과학교실



## 우리 아이 말할 수 있을까요?



**소** 아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이라는 말을 보호자에게 종종 듣게 되는데 아마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네의 남다른 자식사랑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그런지 중증의 소아환자를 보게 되면 여러 모로 안타까운 상황을 흔히 접하게 된다.

선천성 성문하 협착으로 출생시부터 호흡곤란이 있었던 출생한지 1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아이의 부모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설명에도 궁금증이 많았는지 의과대학 교수실로 찾아뵙겠다고 찾아왔다. 아이의 아빠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달래며 앞으로 아이에게 시행될 수술과 향후 경과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으로 질문을 했다.

출생시부터 있었던 호흡곤란으로 두차례의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으나 기관삽관을 하지 않으면 다시 나타나는 호흡곤란 증세로 이비인후과에 의뢰가 되어 내시경을 시행한 결과 성대하부의 중증의 성문하 협착이 확인되었다. 후두의 선천적 질환 중 세 번째로 흔하다고 하지만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가 필요 없는 가벼운 협착인 경우가 많아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불행히도 이 환자의 경우에는 기관절개술과 좁아진 공간을 넓히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외국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우리나라

에서는 호흡을 위해 일시적으로 목에 숨구멍을 낸다는(기관절개술) 이야기를 하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지나친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를 흔히 접하며, 드물게는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하물며 태어난지 2주가 채 안된 아이에게 기관절개술을 하고 목에 튜브를 넣고 살아야 한다는 설명에 이르자 무뚝뚝해 보이던 아버지의 눈도 붉게 충혈되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 후에 울어도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공기가 성대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기관절개술을 한 튜브로만 거친 숨소리를 내며 불편한 듯 버둥거리는 아이를 보자 의사인 나 역시도 안타까운 마음에 몽클함을 느꼈다. 하물며 우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목에 튜브를 넣고 있는 생후 2주 된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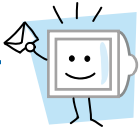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기관절개술에 적응하면서 다른 아이처럼 살도 뽀얗게 오르고 커가는 아이를 볼 때 너무 귀여워서 바쁜 진찰중에도 한번 안아보기도 하고 볼도 비빈다. 진찰할 때마다 두 번에 한번 꼴로 엄마와 할머니는 『아이가 나중에 말할 수 있을까요?』하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곤 했다. 그러면 나는 아이가 말 잘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테니 잘 키우시라는 말로 응대를 했다. 중간에 성문하부를 넓히는 수술을 한차례 받고 수개월이 지난 어느날 성문하 협착부위가 넓어졌다고 판단하고 기관절개 부위에 넣었던 튜브를 제거하게 되었다.

수술 후 아이의 목에서 나오는 웅아리와 우는 소리에 가족 모두 신기해하면서 감동하였다. 우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도 그날은 예외였다. 아이의 우는 소리가 얼마나 귀엽고 신기하고 소중한지를 새삼 알게 된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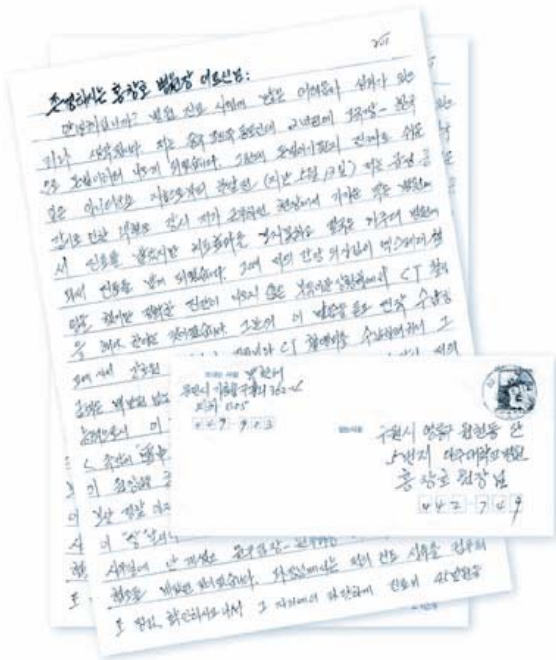
진료실을 다시 찾은 아이는 예전에 측은하게 보였던 아이가 아닌 이제 막 돌이 지난 한껏 귀엽고 정신없이 움직이는 튼튼한 사내아이였다. 한동안 내 품에서도 아무렇지 않았던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처럼 낯을 가려 얼굴을 붉히며 엄마에게로 가려고 울려는 것이 아닌가?

가끔씩은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큰 건장한 청년이 되어 만났을 때는 얼마나 뿌듯할까 하는 생각과 다른 것은 다 변해 알아보기 힘들어도 아이의 목에 있을 어렵풋한 수술흔적은 아이에 대한 추억과 애정에 대한 표식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김 철 호 교수 / 이비인후과학교실



# 아주대병원은 환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요람



저는 중국 조선족 동포로, 2년전 고국 땅으로 돈벌이를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달 전인 지난 5월13일 저는 급성 감기로 인한 객혈로 당시 제가 근무하던 현장에서 가까운 작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촬영을 했지만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 CT 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수납창구에 가서 CT 촬영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검사비 등을 수납하려 하니 그 금액은 백만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능력으로는 이 많은 진료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무겁게만 느껴지는 가운데 때마침 마음씨 착한 이틀 모를 한 환자분이 원장님을 찾아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뜸에 저는 부끄러움도 있고 보안요원의 안내 하에 병원장님을 찾아 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병원장님은 외출중이셨고, 저는 장학수 원무팀장님과

임재수 과장님을 찾아 협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임재수 과장님께서 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진료비 45만원을 챙겨 예약한 날짜에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5월25일, 6월3일 두 차례에 걸쳐 흉부, 목, 코 등 상세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목구멍과 코에서 약간의 염증이 보였지만 약물 치료 후 빠르게 건강이 회복되고 있으며, 며칠 전부터는 원래 다녔던 일터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의 모든 일들을 생각만 해도 두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핑 돌곤 합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글 몇자 적어 보내는 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전체 교수님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20일 남짓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가슴 깊이 느낀 점이 있다면 아주대학교병원이 사람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환자들의 요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글을 통해 원무팀장님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또한, 가정의학과 이연주 선생님, 주남석 선생님, 한지수 간호사 선생님, 호흡기내과 오윤정 선생님, 이비인후과 김현준 선생님, 진단검사 의학과 오영아 선생님, 또 이외에 이름 모를 몇 분의 선생님께 감격의 눈물을 머금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쓰고, 한국 땅에 온 저의 목표도 이뤄낼 수 있도록 한국주택 건설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병원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대학교병원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 글은 중국 조선족 동포인 박한태 님께서 지난 6월20일 아주대학교병원 홍창호 병원장님 앞으로 보내온 편지글입니다.



##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간 수치가 8천이라고 하는데 ...



**Q** 얼마전 62세된 아버지가 사고로 간 80%가 파열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뇨병도 있고, 간 수치가 8,000이 나왔습니다. 간이 몇 %나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간수치는 정상인이 40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 8천이란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A** 간수치는 간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기 보다는 간세포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쓰이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간수치가 많이 높다고 위험하고, 간수치가 조금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아버님의 경우처럼 사고로 간파열이 된 경우, 간파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한 출혈 등의 원인으로 저혈압에 빠졌다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일시적인 간손상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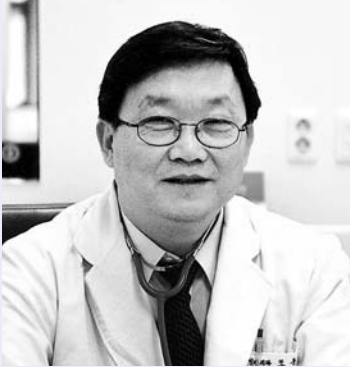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현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간 수치가 8천이라는 것 보다는 다른 전신적인 상황이 치료예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소화기내과 정 재 연 교수〉



# 수술실, 그 곳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 외과 조용관 교수가 말하는 수술실



외과는 수술이 진료 업무의 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정규 수술만 해도 매일 20명 이상이 외과환자이니, 우리 병원 전체 하루 수술 건수의 약 4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숫자만이 아니

고 그 내용 하나 하나가 간단하고 작은 수술은 없고, 분야도 두경부, 유방, 간, 담도, 췌장, 위장, 대장, 소아, 이식, 혈관, 복강경수술 등으로 전문분야마다 이름도 거창하고 수술내용도 큼직하다. 또 그 수술들의 성공이나 복잡한 장비, 기구들의 취급에 수술실 간호사들이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하고 걱정이 매일 떠나지 않지만 수술실 식구들을 보면 항상 헛 걱정임을 깨닫곤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응급수술은 또 어떠한가! 외과는 하루 4개방을 배정 받았지만 어떤 때는 그 배가 넘는 여덟 방 이상에서 동시에 꺼져가는 생명을 붙잡고 씨름을 할 때도 있다.

그 때마다 옆을 보면 든든한 우리 수술실 간호사들과 분야별로 지원하여 주는 선생님들이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결되는 고도의 수술행위는 물론이고 기구, 장비, 절제 표본의 정리, 병실이나 중환자실 배정, 보호자 면담 주선 등까지 부드럽게 연결하여 주니 수술하는 의사와의 이심전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울 때 불평은 커녕 힘들어 하는 수술 중의 외과 의사들에게 「여름에 나뭇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주는」 산돌바람 역할까지도 말없이 조용히 하여 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지면을 빌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전문인력으로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여 본다.



**병**원에 대해 얘기할 때 간혹 「수술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쓴다. 특별히 수술실이라는 공간의 사람들을 따로 지칭할 정도로 「수술실」은 의료진에게도 일반인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공간이다.

수술을 하는 의료진과 수술을 받는 환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는 장소,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냉혹하면서도 새 생명의 꽃을 피우는 따뜻한 장소. 아주대학교병원 3층에 위치한 수술실에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그 곳에 있는 「수술실 사람들」은 누굴까?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수술실 간호사, 마취통증의학과 간호사, 장비를 고쳐주는 의용공학팀 직원, 소독·공조 담당자, 간호 조무사, 이송요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현장에서 요란하거나 걸로 화려하게 빛나지 않는 치열한 전투를 치뤄내고 있다.







특히, 완벽한 수술을 위해 수술시 의사를 지원하고, 수습, 수백가지의 수술도구를 관리하며, 수술실을 들어선 순간부터 수술후 회복실에 이르기까지 환자 상태를 살피며, 수술공간으로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정숙, 박정옥 수간호사를 비롯한 54명 간호사들의 활약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술실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세상에 하나 뿐인 생명을 다루기에 더 고되고, 힘들며 때론 절망하고, 비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을 되찾은 환자의 편안한 미소와 기뻐하는 가족들을 볼 때면 그동안의 노고는 어느새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열과 보람으로 다가오기에 1년 365일 수술실을 지키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의 경우 17개의 수술방에서 매일 평균 70~80건의 수

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술은 미숙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수술에서 수습 시간을 요하는 고난이도의 수술, 응급수술 등 다양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오연주 간호사가 말하는 수술실



머리카락 보일세라 꼭꼭 눌러쓴 모자, 들이쉬고 내쉬는 숨길마저도 수술실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엔 얼굴의 반 이상을 가려버린 마스크, 그 틈새로 유난히 까만 눈망울들은 초롱초롱 빛을 발하고 ...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꾸벅. 미소 머금은 인사말로 우리의 아침을 경쾌하게 시작한다.

아침 미팅이 끝나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사람들.

불안한 눈빛으로 수술대 위에 놓는 환자,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랠 길 없어 눈시울이 붉어지는 보호자, 그 분들의 간절한 소망을 가슴에 담은 채 수술방 54명의 간호사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수술실에 합류한다. 「부디, 오늘이 지나고 나면 편안함과 건강이 그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

그리고 수술실 54명의 간호사들은 항상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끊임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안경 · 라식수술, 이것이 궁금합니다



## 안경을 썼다벗었다 하면 눈이 더 나빠진다?

안경은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이상을 교정해서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성인이나 시력 발달이 끝난 10세 이상에서는 필요할 때(TV 시청, 수업 등) 안경을 쓰고 불편하면(운동, 휴식 등) 벗어도 눈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력발달 이전의 나이에서 심한 굴절 이상이나 약시가 있거나, 안경으로 교정해야 하는 사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안경착용을 해야 합니다.

〈정답 : X〉

## 어려서 일찍 안경을 쓸수록 안경에 맞춰 눈이 더 나빠진다?

우리나라에서 굴절이상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근시는 대부분 축성근시(axial myopia)로 안구가 앞뒤로 길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시는 학동기 전후로 나타나서 성장기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성장기에 시력검사를 할 때마다 안경 쓴 시력이 떨어지고 점점 안경이 두꺼워 지는 것은 안경 때문이 아니라 근시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쓰지 않아도 근시는 진행합니다. 안경이 꼭 필요한 시기에 잘못된 지식으로 안경착용을 미루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정답 : X〉

## 엑시머, 라식 수술은 만 20세가 지나야만 가능하다?

만 20세 이후에는 근시, 난시 등 굴절이상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안경도수도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경도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엑시머, 라식 등의 굴절교정 수술은 만 20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정답 : O〉

## 아이가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20세 이후에 엑시머, 라식 등의 수술을 받으면 된다?

안경을 써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를 약시라고 합니다. 시력이 발달하는 만 6, 7세 이전에 원인을 찾고 약시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술로도 시력이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경을 썼을 때 정상시력이 나오는 경우에 안경 대신 굴절교정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는 약시를 치료하는 수술은 없습니다.

〈정답 : X〉

장 윤 희 교수 / 안과학교실



# 지역사회 봉사과 나눔을 같이하는 수원중앙병원

## 무언가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

1994년 1월 개원하여 같은 해 개원한 아주대학교의료원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발전을 위해 발맞춰 온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하는 수원중앙병원은 1번 국도의 핵심지점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가구거리에 위치하여 동서남북 어느 지점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 2004년 현재 266병상, 230명의 직원을 두고 1, 2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치과, 진단검사의학과,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센터 등의 전문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병원이다.

수원중앙병원은 개원 이래 꾸준히 연구하는 병원, 신뢰받는 병원,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병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아 왔으며, 전 의료진과 직원들은 지역 주민에게 무언가 베풀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친절 서비스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이 병원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방문 때마다 내 집 같은 포근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 진료, 연구, 봉사활동 ...

수원중앙병원은 진료 각과에 우수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내과의 간, 세포암종, 외과의 화상, 정형외과의 인공관절클리닉, 신경외과의 관절통 및 요통 부문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면역요법연구소에서는 분자생물학, 분자면역학, 항암세포면역치료, 효소치료법, 자연요법 등으로 환자, 보호자, 직원들에게 식생활 개선의 교육과 면담을 통해 좋은 결과와 호평을 얻었다.

이밖에도 복지시설과 불우이웃을 찾아다니며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각별한 애정을 기울이고 있다.

## 의료진과 직원이 건강해야 환자도 건강하다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과 직원부터 건강

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수원중앙병원의 직원들은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보스턴 마라톤대회 출전 자격까지 획득할 정도로 마라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선근 이사장을 주축으로 국내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의 정기적인 참가는 물론, 하프와 풀코스를 완주하는 4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마라톤 동호회까지 보유하고 있다. 수원중앙병원의 직원들은 자신의 건강은 자신들이 지킨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건강한 신체로써 환자의 완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건강한 병원, 더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는 병원

수원중앙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동갑내기, 아주대학교병원과 함께 유용한 지식을 공유하며 서로간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 발전하는 가운데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 인간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병원이 되고자 지금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영 배 팀장 / QI팀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건축기금 모금 현황

구 분	회원수	약정액	기부총액
월 간	5명	15,000,000원	13,074,000원
누 계	354	1,853,475,531원	1,816,661,331원

성 명	약정액	의료원과 관계
-----	-----	---------

### <의료원 납입분>

허은영	3,000,000	아주 약국
이성낙	10,000,000	아주대학교 석좌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의국 동문회	1,000,000	
이평애	500,000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직원
복미숙	500,000	아주대학교의료원 교직원
교직원 분납분	3,574,000	(교직원 급여 공제)

2004.5.25~6.28



주의력 결핍 · 과잉행동장애 건강강좌 열어



아주대학교  
병원 학습 및  
발달장애클리  
닉은 7월1일  
목요일 오후 2  
시부터 4시까  
지 병원 지하

1층 아주홀에서 주의력결핍 · 과잉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우리 아이 산만한가요, 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날 건강강좌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과 신윤미 교수가 「산만한 아동의 이해와 진단」에 대해 강의하고, 해맑은 신경정신과 조주연 원장이 「주의력결핍 · 과잉행동장애의 치료와 지도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 후에는 주의력결핍 ·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무료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져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병원, 지하 3층에 구두광택 및 수선점 운영

병원은 교직원 복지증진 및 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6월11일부터 병원 지하 3층 외래 엘리베이터 옆에 구두광택 및 수선점을 운영하고 있다.

구두광택 및 수선점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이용에 관한 문의는 수선점 ☎ 031-219-4211)으로 하면 된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 (운행간격 : 20분)

병원 → 아주대 입구 (우리은행) → 미소지움아파트 → 동수원사거리 삼성생명 → 동수원사거리 조흥은행 → 호텔캐슬 건너편 이화약국 → 아주대 삼거리 → 국립지리원(팔각정 갈비 옆) → 병원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 분과명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관절내과 스포츠 센터	강신영	5818		월	수부 및 상지외과	
	남등훈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서창희	5818	화	월, 수, 금	류마티스 질환, 류프스, 통풍	
	민병현	5543		수	슬관절 및 견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애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수부 및 상지외과	
	김현정	5543	수		발목 및 발의 질환	

진료과 분과명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유전학 클리닉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김현주	5903	화, 목	수	유전상담	
통증 클리닉	김찬	4331	월, 수, 금		삼차신경통, 다관절, 수족냉증, 대상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해외연수중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일본진로	4332		월, 화, 목, 금	경부·요부 디스크, 오십견 등 암성통증 기타	
유방 클리닉	김명옥	4743	목		유방 질환, 난치성 소화기 질환	
	정용식	4743	월, 화, 토(격주) *	월 * 목	유방 질환	★
	윤대일	4743	수, 금	월 *	유방 질환, 내분비 질환	
					*은 말모름 시술만 시행	
학습 및 발달장애 클리닉	신윤미	5814		화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	
	조선미	5814	금, 토(격주)	수,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

진료과 분과명	의사명	진료일 진료시간	오 전	오 후	비고	
소화기 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정재연	5963	금	화, 수, 목	
		왕희정	5753	금	화, 금	
		원제환	5863		해외연수중	
순환기 내과	심부전 및 관막질환 클리닉 5717	신준한	5973		화	
호흡기 내과	여행자 예방접종 클리닉 4730	최영화	4730	월, 목	수	
알레르기 클리닉 내과	벌독(곤충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박해심	5905	월, 금		
		남동훈	5905	화	목, 금	★
정신과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클리닉 5814	임기영	5810	화	목(19:00~21:00)	
피부과	안면색소클리닉 5917	강희영	5914	수, 금	월, 수(레이저치료) 목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최호	5752	화, 목	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 수술클리닉 5664	신용삼	5664	해외연수중		
		김선용	5858	수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5614	정재호	5612	화, 목	금
산부인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황경주	5597	월, 수, 금	월, 금	
		김미란		화, 목	화, 수, 목	★
안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양홍석	5671		화, 금	★
		문상호	5670		화(2주, 4주)	
비뇨기과	요실금클리닉 5585	최종보	5587	화, 금	수	
		김영수	5585	수	금	
가정의학과	비만클리닉 5959	김범택	5957	월, 수, 목	금	
		황병남	5869	화, 목	목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고석민	5869	월, 금	화	★
		황병남	5957	금	월	

#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4년 7월1일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은 토요일에도 특진 의사가 진료를 합니다

진료과 의사명	진료실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금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웨·담도질환	
	함기백 5963	월, 목	화	위장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질환, 위장관 기능장애	
	유병무 5962	월, 수	금	웨·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수	월, 수	위장 질환, 대장질환	★
	정재연 5962	금	화, 목	간질환	★
	심성준	목		소화기 질환	
	김중수		월	소화기 질환	
	최준혁		금	소화기 질환	
순환기내과	임태영	수		소화기 질환	★
	최혜진		화	소화기 질환	★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신준환 5975	월, 목	화	관상동맥,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황고승	목	월, 목	부정맥, 심전기생리검사, 전국도자절제술, 인공심박동기	
	윤영호 5975	화	목,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
	최소연 5975	금	화,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시술	★
	유상용	월		심장혈관질환	
	안성균		금	심장혈관질환	★
	최태영 5975	금	월	고혈압, 심장질환	★
호흡기내과	최병주 5973	화	수	고혈압, 심장질환	★
	최정현 5973	수		고혈압, 심장질환	★
	황성철 5967	월, 화, 수, 목, 금	목	폐암, 감염성폐질환, 폐결핵, 만성기침	
	박광주 5967	해외연수중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치료학	
	최영화 4731	월, 목	수	발열, 감염질환, 에이즈, 예방접종, 결핵	
	신승수 5968	화, 수	월, 금	만성폐질환, 중환자치료, 폐암, 폐결핵	
	오윤정 5968	월, 수, 목	화	폐결핵, 만성폐질환, 폐암, 만성기침	
	박주현	목, 금	월, 화	만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중환자치료, 폐결핵	★
	최영인		수, 목	호흡기질환	★
	내분비내과	이관우 5961	월, 수, 금	목	당뇨병, 내분비대상질환
정윤석 5955		화, 목	월,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5955		월, 화, 목	수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일반진료 5961		수, 금	화	내분비대상질환(재진만 진료)	★
신장내과	김홍수 4741	월, 목,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금	월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정혁준	화, 목	화, 목	신장질환	
	송영수	수, 금	수, 금	신장질환	★
종양내과	일반진료			신장질환	★
	김효철 5992	수, 금		림프종, 골수종, 백혈병,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임호영 5991	월, 화, 목		식도·위장·대장·직장암, 각종 고형암	
	최진혁 5994	수, 금	월	두경부·식도·폐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박준성 5992	월, 화	화, 목	혈액질환, 종양	★
임상외과	장준하 5990	목	월, 수, 금	혈액학	★
	일반진료		월, 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
	박해심 5905	수, 목	수	천식, 알레르기질환	
	남동호 5905	화	화, 목, 금	천식, 알레르기질환, 류마티스, 루푸스, 통풍	★
	서창희 5818	화	월, 수, 목, 금	류마티스 질환, 류마티스, 통풍	
영상의학과	김상하 5905	목	화, 금	기관지천식, 알레르기질환	
	일반진료		월	천식, 알레르기질환	
				*는 관절염센터 진료	
	내과일반 5970	월~금	월~금		★

진료과 의사명	진료실 진료번호	오 전	오 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과	홍창호 5620		수, 금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김성환 5616	화, 목, 금	수	신경계질환, 간질, 발달장애		
	배기수 5623	월, 화, 목	목	신장질환		
	이수영 5623	수, 목	수, 화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박문성 5617	월, 수	수, 금	미술사, 신생아 질환		
	정조원 5621	수, 금	월	심장질환		
	홍진순 5619	월	수, 목, 금	소아내분비 및 유전대사 질환		
	박준은	화, 목	수, 목	소아혈액·종양질환	★	
	서효정	월, 화	월, 금	소아일반질환, 알레르기·내분비질환		
	유재은	금	화	소아일반질환, 신생아질환		
신경과	김연희	수	목	소아일반질환, 신경계질환		
	일반진료	목	수		★	
	토요일은 특진1명, 일반1명의 의사가 주마다 고대로 진료를 합니다.					
	허균 5659	화, 수	월, 목	간질, 치매,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목	월, 금	뇌졸중, 척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방오영 5657	월, 금	화, 수	뇌졸중, 치매		
	이필휴 5657	월, 목	화, 수	뇌졸중, 파킨슨병, 운동장애	★	
	일반진료 5657	수, 금	목, 금	신경계질환	★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금	화	우울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기영 5810	화	수, 금	불안장애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이영문 5810		목, 금	월, 목	정신분열의 재활치료, 우울증	★	
노재성 5811		수, 목	월, 금	우울증, 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월, 금	화, 목, 금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틱, 자폐언어장애		
피부과	일반진료	화	화, 목			
	이성낙 5912	수, 목, 금	수, 목, 금	베체트병, 화학박피술		
	이은소 5912	월, 화, 목	수, 목, 금	건선, 여드름, 베체트병(화·레이저치료)		
	김유찬 5914	월, 화, 목	화, 목, 금	피부종양, 화학박피술(금·레이저치료)		
	김희영 5914	수, 금	월, 목, 금, 목	백반증, 무좀, 접촉피부염 (수·레이저치료)		
외과	이지연		월, 목, 금	색소성 질환 (목·레이저치료)		
	레이저치료		화, 수, 목, 금	예약에 의함		
	일반진료 5913	월~금	월~금		★	
	김명옥 5761	월,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식도, 위장질환		
영상의학과	소의영 5756	수, 금		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풍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영희정 5753	금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서광욱 5753	월(재진)	월(초진),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찬권 5756	월, 금	월, 금	장기이식외과, 혈관외과		
	김우환 5756	화, 목		간·담도·췌장 질환	★	
	한상욱 5754	금	월, 금	위·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위수술		
	정웅식 5753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국종 5753	목		외상외과		
	윤태일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영상의학과	김홍		수, 목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	
	정인호	수		담도계 질환, 복강경 수술	★	
	김봉완		화, 금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급성복통	★	
	안상익		수	두경부질환, 유방질환		

외래진료 접수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031) 219-5114
- F A 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5546
- 응급의료센터 : (031) 219-60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시간 진료번호	오전	오후	세부전공	비고
홍부 외과	이철주	5749	금	화	성인심장혈관외과	
	소동문	5750	월, 수	월	소아심장혈관외과	
	최 호	5750	화	화, 목	폐·식도외과, 다한증, 하지정맥류	
	강준규	5750	목	금	심장혈관외과	
	이상수			월, 수	폐·식도외과	
일반진료	5750				★	
정형외 과	강신영	5544		월*, 목	수부 및 상지외상, 기형, 미세수술외과	
	민병현	5543	월, 금(초진)	수*	슬관절 및 건관절외과	
	전창훈	5542	화*, 목, 금		척추외과, 족관절, 최소침습수술	
	원예연	5542	월, 수	목	인공관절외과	
	한경진	5543	목*	월, 화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혈관신경외과	
	김현정	5542	수*	화, 목	발목 및 발의 질환	
	전영수		월, 금	금	골연부조직 종양 및 외상학	★
	조재호		월, 수, 금	금	소아정형(변형교정, 키 늘리는 수술), 외상	★
	일반진료	5542	화, 수, 목	금	*는 관절염센터 진료	★
	신경외 과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목	월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현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뇌종양	
안영환		5662	화, 금	금	안면경련증, 삼차신경통, 방사선수술, 뇌종양	
신용삼		5663	해외연수중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 치료	
김세혁		수	수, 금	수, 금	뇌종양, 뇌혈관 질환, 외상	
삼숙영		월	목	목	뇌종양, 외상, 일반신경외과	★
허지순		5663	월, 수	월, 수	척추질환, 외상	
상형외 과	박명철	5611	월,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정재호	5612	화, 목	금	악안면부성형, 미용성형, 악안면부기형	
	박동하	토	월, 목		수부성형, 미용성형	★
	정수우		화, 수		미용성형, 체형성형(비만)	★
	일반진료	월-금	월-금			★
산부인 과	오기석	5595	화, 목, 금		부인과 질환	
	유희석	5594	화, 목	월	부인암	
	김행수	5593	해외연수중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장기홍	5594	월, 수	화, 금	부인암, 복강경	
	양정인	5593	월, 수, 목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예약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월, 금	불임, 습관성 유산, 복강경	
	이정필	5595	월, 금	수, 목	부인암, 비뇨부인과, 복강경	★
	김미련	5643	화, 목	화, 수, 목	불임, 복강경, 미혼여성클리닉	★
	일반진료	월-금	월, 수, 목, 금			★
	안과	유호민	5669	월, 수, 금	월(예약), 목(예약)	망막, 조차재, 백내장
안재홍		5672	월, 화	금	각막, 녹내장, 백내장, 굴절수술	
문상호		5670	금	화, 목	안성형, 백내장	★
장윤희		5672	목	월, 목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화, 금	각막, 백내장, 외안부, 하드렌즈	★
문찬식		화, 수		금(예약저 치료)	망막, 백내장	★
일반진료		5671	월-금			★
이비 후 과		박기현	5742	월, 금		난청, 어지럼증, 귀종양 및 두개저외과
	문성균	5742	화(신생물과)	월, 목	중이염, 난청(유전성 난청), 인공와우, 보청기	
	정연훈	5742	목(어지럼증)	화, 금	난청, 어지럼증, 인공와우, 귀종양	
	김철호	5746	월, 목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 질환	
	김현준	5746	수, 금	화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
	오정훈		월, 수		비염, 부비동염	★
	김병철	화	금		비염, 부비동염	★
	이준호	수	목		난청, 중이질환	★
	일반진료	월-금	월-금			★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시간 진료번호	오전	오후	세부전공	비고
비뇨 기과	김영수	5586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월, 화	요로결석, 불임	
	최종보	5587	화, 금	수	배뇨장애, 요실금, 남성과학(성기능장애)	
	오동근		수, 목	월	남성과학, 요로결석, 요실금	★
	강지훈	월		화, 금	비뇨기 종양(암)	
일반진료	금		수, 목		★	
재활 의학 과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수, 목	화,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
	임신영	6440	화	월, 수, 금	소아재활,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
	윤승현	5802	월, 금	화, 수, 목	노인재활, 근골격계 재활	★
	일반진료	화		목		
진단 사 과	김선용	5854	월, 화, 목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환	5863	해외연수중		혈액생화학, 중재적 치료, 핵의학, 방사선물리치료	
	5823	일반진료	5145	수, 금	화, 목	
방사선 종양 학과	전미선	5884	월-금	월-금	종 양(부인암, 유방암, 소화기암)	★
	오영택	5884	월-금	월-금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
	강승희	5884	월-금	월-금	종 양(뇌종양, 육종, 정위방사선치료)	★
	일반진료	5884	월-금	월-금		
핵의 학과	윤성남	5947	월-금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
	윤준기	5947	월-금	월-금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
신원외 과	이경종	5645	화		직업성 질환	
	박재범	5606	목		직업성 질환, 직업성인간공학	
	일반진료	5644	월-금		직업성 질환	★
가정 의학 과	김광민	5958	월, 수, 금	화	만성폐로, 노화관리, 남성갱년기	
	박새별	5957	화, 금	월, 수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가족상담	
	김범택	5959	월, 수, 목	금	비만, 골다공증	
	안병환	5959	화	목	비만, 갱년기, 골다공증	
	정재훈	5959	목	월	갱년기, 골다공증	
일반진료	4808	월-금	월-금		★	
치 과	황병남	5869	화*, 목*, 금	월, 화, 목*	인공치아, 이식, 턱관절장애	
	이정근	5869	월, 화*, 수, 목*	화*, 수*, 목*	악안면기형, 악안면외상, 인공치아, 이식	★
	고석민	5869	월, 화, 금*	화*, 수, 금	인공치아보철, 틀니	★
	유성근	5869	수*, 목*	월*, 수*, 목*, 금*	치열 교정, 악안면기형, 주걱턱	★
	일반진료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오후는 초진 가능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시간 진료번호	오전	오후	야간	세부전공	비고
응급 의학 과	조준필	6005	월, 수		수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운석	6005	화	월, 목	화	독극물중독, 응급질환	
	이국중	6005	금	수	금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민영기	6005	목	화, 금	월	응급의학, 중환자의학	★

**토요일 특진운영 안내**

토요일은 특진교수가  
과제로 진료를 합니다.

**토요일 외래진료는 주마다 특진 의사가 바뀔 수 있으나  
세부전공과 관련없이 모든 질환을 진료합니다.**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는 특수진료입니다.
3. \* 는 세부전공만 진료합니다.
4. ■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